



양계자조금사업 추진현황

양계자조금사업 협회 추진방향



이 종 길 본회 전무

동 향

최근 축산업계를 논하고자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는 자조금이다. 불과 3~4년 전만해도 어떻게 하면 자조금이 정착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현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잘 운용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계산업은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채 타 축종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각종 축산정책 역시 각 축종별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축산산업의 4대 대표산업 중 양돈, 한우, 낙농산업

이 연간 100억원대 안팎의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나머지 한 산업인 양계산업에 자조금이 정착될 때까지 정책시행을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 양계자조금 추진현황을 살펴보자. 양계자조금 사업은 우리나라에 자조금이 도입되던 1992년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거 닭고기·계란 소비촉진을 위해 연간 1억원 내외의 자금이 본회 회원을 중심으로 조성·운용되며 시작되었다. 이렇게 조성되던 양계자조금은 차츰 육계와 산란계산업이 계열화·전업화됨에 따라 2004년부터는 육계·산란계자조금 사업으로 분리된 가운데 산란계의 경우 연간 2억원(정부 지원금 포함) 내외의 자금이 조성



되어 계란 소비촉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본회에서는 육계·산란계의무자조금의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산업구조와 이해 당사자간의 견해차 등으로 다소 더딘 진행사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조금 사업의 주체인 생산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있을 경우 추진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육계자조금

육계자조금은 본회, 농협중앙회, 한국계육협회 세 단체가 의무자조금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2004년 9월에 구성, 2005년 10월에는 135명의 육계자조금대의원을 선출하여 추진되고 있다.

2005년 12월 육계자조금대의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다. 2006년 4월 다시 개최된 육계자조금대의원회에서는 109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의무자조금을 육계 수당 5원(종계 50원, 재래닭 7.5원, 삼계 2.5원)씩 거출키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관리위원 및 감사위촉(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폐회되었고, 2006년 11월 육계자조금관리위원 및 감사위촉을 위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또다시 부결되었다.

현재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관리위원 및 감사위촉(안)을 구성 중에 있다. 새롭게 추천을 받아 구성한 관리위원 및 감사위촉(안)의 통과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육계의 경우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은 갖춰져 있다. 반면 인선(人



選) 관련 이견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일단 사업이 시작될 경우 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란계자조금

산란계의무자조금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조금거출 수납기관 변경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는 현행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모든 축종의 자조금거출 수납기관이 도축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산란계자조금 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회는 2004년부터 산란계의 거출 수납기관을 현실적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현실적인 수납기관의 대안으로 제시된 의견 중 배합사료판매업체에서 사료판매량을 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안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 산란계자조금 거출수납기관으로 배합사료업체가 지정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사료업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이에 2006년 11월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산란계 병아리 부화장에서 병아리 판매수수를 기준으로 거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산란종계 대표자와 채란분과대표자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산란종계업계에서는 강제환우, 중추분양, 대금결제체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조금 수납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부화장에서 자조금을 수납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는 한편 산란종계업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여 부화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준비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산란계자조금은 당분간 지회·지부를 통해 농가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유지될 계획이다.

결론

양계업은 축산업 중 가장 전업화·계열화되어 전업농가의 숫자도 타 축종에 비해 10분의 1(한우-2만여농가, 산란계-2천여농가)에 불과하다. 또한 계란은 국내 자급율이 99%에 육박하여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도 거의 없는 품목이다. 일견 자조금의 도입 및 정착이 가장 수월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생산자가 참여하여 생산물 소비촉진에 쓰여지는 자금인 자조금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산업이다.

자조금이 도입·정착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자의 의지이다. 생산자가 자조금의 조성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양계자조금은 지금 부딪치고 있는 몇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만 한다면 가장 성공적으로 자조금사업을 시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조금이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양계산물의 소비가 증대되는 그날까지 본회는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조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계**